

8 종합

국제캠도 경희꿈도전장학 도입 학생성장 중심 장학 비중 확대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국제】 '경희꿈도전장학'이 국제캠에도 만들어진다. 경희꿈도전장학은 학생들이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자아성찰과 도전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장학제도다.

성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아닌 '도전 의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창업 ▲자유 주제 ▲학술 연구 ▲SDGs(경희정신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서울캠에서만 운영됐으나, 이번 학기부터 국제캠에도 확대 적용된다. 우리학교는 '2025 교육혁신 전략'에 따라 장학

체계를 소득 중심 지원에서 학생 성장 기반 지원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작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며 가계 중심의 국가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 장학 제도는 학생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량강화장학'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행복장학을 폐지하며, 해당 재원을 학생 역량강화장학으로 재배분하는 등 장학 구조 개편도 이뤄진 바 있다. 경희꿈도전장학을 국제캠에 도입하는 것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장학팀은 "경희꿈도전장학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제캠까지 확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도입은 우리학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캠퍼스 간 장학제도 일원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장학팀은 "일원화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학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캠과 동일한 운영을 목표로 하되, 캠퍼스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캠은 꿈도전장학 I·II를 운영중이지만, 국제캠은 우선 I을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2026학년도 1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농구부, '2026 대학농구 윈터챌린지 상주대회' 준결승서 마감

농구부가 '2026 대학농구 윈터챌린지 상주대회' 단국대와의 준결승에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신입생들의 데뷔전이었던 이번 상주대회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합을 맞춰보는 첫 실전이었다. (사진=한국대학농구연맹)

경기 RISE사업 - 융합기술연구원 성과 공유회 '판교 VI 캠퍼스' 등 3대 과제 발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지난 26일 '경기도 RISE사업 - 융합기술연구원 성과 공유회'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열렸다. 지역 혁신을 목표로 추진해 온 RISE 사업과 융합기술연구원의 1년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3대 핵심 과제 '판교 벤처 인큐베이팅 캠퍼스 조성', '로컬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지수 개발', '우주·국방 반도체 핵심 IP 국산화'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2025 경기도 RISE 사업단은 주요 성과로 판교에 '벤처 인큐베이팅 캠퍼스(VI 캠퍼스)'를 조성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이 공간은 서울캠의 바이오 헬스케어 인프라와 국제캠의 AI·반도체 기술을 연결하는 핵심 융합 거점이다. RISE사업단(국제) 최석원 부단장은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창업 지원을 넘어 대기업 및 우수 스타트업과 협력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대학 내 첨단 기술과 성장 경험이 실제 기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지난 26일 '경기도 RISE사업 - 융합기술연구원 성과 공유회'가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열렸다.

(사진=도은오 기자)

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파트너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산학협력혁신센터는 지역 고유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컨

설팅하는 '로컬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받듯 지역도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성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가 결과는 서열이 아닌 각 브랜드의 개성을 담은 '오각형 성장 지도'로 시각화했다. 박상희 센터장은 "올해 최종 선정된 20개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형, 확산형, 지속성장형

등으로 유형화했다"며 "이 데이터를 아카이빙해 향후 지역 브랜드의 성공 패턴을 복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센터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우주·국방 반도체의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했다.

최근 민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하는 내방사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기술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센터의 임영현(전자정보공학) 교수는 "연구진이 방사선 입자에 의한 찰나의 오작동과 서서히 수명을 단축시키는 누적 손상에 모두 강한 설계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AI 연산 시 발생하는 전압 변동을 빠르게 회복하는 하드웨어 기술 개발도 병행해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경기도 RISE 사업이 단순한 재정 확보나 수익 창출을 넘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최 부단장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지식이 시민의 경험과 행동으로 전환되는 구조 그 자체가 라이즈가 지향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전했다.